

〈국립박물관〉

2022년 임인년 맞이 호랑이 그림I

기간 2021.12.29.~2022.5.1.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서화실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호랑이 그림을 공개하는 전시이다.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월하송림호족도月下松林虎族圖〉, 〈호작도虎鵲圖〉와 〈용도도龍虎圖〉(덕수2300), 〈산신도山神圖〉(구8594) 등 15건 18점의 작품이 공개되어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를 감상할 수 있다.

MMCA 국제미술 소장품 기획전

《미술로, 세계로》

기간 2022.1.20.~6.12.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기획전시실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활동과 전개를 살펴보는 전시이다. 1978년부터 수집해온 다양한 국적의 해외작가 96명의 조각, 드로잉, 회화 등 104점을 전시한다. 이 가운데 초창기 수집 작품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수집 이후 처음으로 관람객에 공개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소개되지 않았던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을 재발견하고 앞으로의 소장품 심화 연구를 위한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기간 2022.3.17.~8.17.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이집트실 전시품의 순회전시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이집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습을 담았다. 본 전시는 이집트인의 실생활과 신화, 미라 등을 소개하여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추구한 그들의 열망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기간 2022.3.22.~6.19.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1·2전시실

국립전주박물관과 진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획전으로 우리나라 채색화의 흐름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채색화는 한국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은 왕실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호되어 왔다. 본 전시는 삼국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다채로운 채색화를 소개한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은 근대 및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같이 소개한다.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秋史와 제주

기간 2022.3.22.~5.29.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보 〈세한도(歲寒圖)〉를 처음으로 제주에서 선보이는 전시이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1840년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김정희는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위로해준 제자 이상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한도〉를 그려주었다. 이 전시는 그림이 제작된 지 178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 온 〈세한도〉를 선보이면서 그 속에 품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나너의 기억

기간 2022.4.8.~8.7.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5전시실

급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자신과 타자의 기억이 혼재되고 중첩되는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개인의 기억을 점유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정보가 기억되고 망각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현재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형성될 미래의 기억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질문한다.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기간 2022.4.15.~2023.10.9.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관 일본실

일본 도교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불교조각품을 특별 공개하는 전시이다. 일본 헤이안 시대 9세기부터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밀교密敎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한 정토교淨土敎로 대표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불교문화가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불교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밀교, 정토교, 신불습합神佛習合을 대표하는 5점의 조각품을 선보인다.

가면무도회

기간 2022.4.13.~7.31.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원형전시실

얼굴을 가리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현대미술작가들의 오랜 탐구 사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가면'이라는 주제는 동시대 의 시각 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미술이 해석한 가면의 이미지와 일상가면의 의미와 기능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빛의 향연-예산 수덕사 괘불

기간 2022.4.13.~10.1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불교회화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괘불전으로 천년 고찰 수덕사의 괘불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조선 1673년에 조성된 〈예산 수덕사 괘불〉의 10미터가 넘는 화면은 아름다운 빛과 그 속의 불교 세계로 마추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아울러 고려시대에 제작된 〈수덕사 대웅전 목조 연화대좌〉가 처음으로 일반에 소개되어 고려시대 불교공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100년 전 미륵사 터와 석탑

기간 2022.4.13.-10.3.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소장되었던 미륵사지 전경, 석탑, 당간지주 등의 유리건판 사진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당시의 흑백사진 가운데 14점을 엄선하여 소개하며,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륵사지의 변화 모습을 살필수 있다.

어린이날 100회 기념 특별전: 우리 모두 어린이

기간 2022.4.22.-7.17.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전시실

2022년 어린이날 100회를 기념하여 개최하는 특별전시이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존엄성을 갖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공감기 확산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마련되었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근현대사 속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민속이란 삶이다

기간 2022.4.27.-7.5.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

민간신앙, 무속, 연희, 놀이, 일생의례, 설화, 민요, 의식주, 생업 등 당시의 삶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는 민속民俗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우리 민속은 20세기 초에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을 만나보고, 내일의 삶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이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故 이진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기간 2022.4.28.-8.28.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삼성그룹 고故 이진희 회장의 수집품 기증 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기증품 중 295건 255점을 엄선하여, 수집품 속 인류의 궤적과 지혜를 관람객들에게 들려준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준비하고,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이 함께 출품한다.

히토 슈타이얼 - 데이터의 바다

기간 2022.4.29.-9.18.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3·4전시실,

프로젝트 갤러리

히토 슈타이얼은 디지털 기술, 글로벌 자본주의, 팬데믹 상황과 연관된 오늘날 가장 첨예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미디어 작가이다.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지닌 필름 에세이 형식의 초기 영상 작품에서부터 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자체를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재고하는 작가의 대표작 23점을 소개한다.

남도문화전 '여수 - 그 시절의 바다'

기간 2022.5.2.-8.15.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광주박물관이 일곱 번째로 개최하는 남도문화전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예로부터 바다를 낀 여수는 다양한 문화가 오가는 교류의 중심지였다. 여수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짚어보며 남도 문화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스텍아,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기간 2022.5.3.-8.28.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3대 문명 중 하나인

자 현대 멕시코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던 아스텍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던 그들의 뛰어난 정치·경제 시스템과 예술, 지식, 종교를 살펴본다. 멕시코국립인류학박물관 등 멕시코와 유럽 11개 박물관의 귀중한 소장품과 새로운 발굴품을 공개한다.

호랑이 그림 II

기간 2022.5.3.-9.4.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서화실

호랑이 그림 I의 후속전시로 <호랑이 그림 병풍>, <호렵도>, <호랑이 흥배> 등 13건 18점을 공개한다. 그림, 책, 의복 등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에서 선조들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2022 기획특별전 '두 전사의 만남'

기간 2022.5.3.-7.3.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획전시이다. 이 전시는 양 기관이 각각 신안 배널리 고분과 고흥 야막 고분에서 출토된 갑옷과 투구와 복원품, 그리고 조사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특히 유물의 발굴과 복원 과정 등을 시각적 자료를 붙여 세세히 설명하여 고고학적, 보존과학적인 측면의 조사 성과를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파란마음 하얀마음 - 어린이 노래

기간 2022.5.10.-9.12.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동요 노랫말로 동심을 일깨우고, 우리말과 글의 묘미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동요童謠는 말 그대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어린이의 노래이다. 동요의 노랫말은 짧고 쉬운 말을 반복하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언어 표현을 풍부하게 하며 밝고 명량한 감성을 길러 준다. 이 전시는 자연과 마을의 공간에서 뛰놀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와 상징으로 구성하였다.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순회특별전 '안녕安寧, 모란'

기간 2022.5.17.-7.17.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이 개최했던 특별전의 순회전시이다. 모란은 예로부터 조선 왕실 유물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무늬로, 궁궐의 도처와 의복, 그릇, 가구 등에 즐겨 사용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상감 청자 모란문병>, <모란도> 등을 비롯하여 50여 점의 유물이 공개된다. 모란이라는 문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 왕실 문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의 이상을 걷다, 궁중현판

기간 2022.5.19.-8.15.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I·II

건축과 서예, 공예가 접목된 종합기록물인 조선시대 궁중현판을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조 궁중현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을 대상으로, 현판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통해 조선 왕조가 추구하고자 했던 국가운영 이념과 가치관을 조명한다.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

기간 2022.5.20-8.21.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1·2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이 개최한 특별전의 순회전이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창작 및 계승되고 있는 한국의 여성문학 내방가사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전기'를 비롯하여 내방가사와 각종 여성 생활사 유

물·여성 잡지·여성 교과서 등 200여 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민속×공예: 소소하게 반반하게

기간 2022.5.20-8.30.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열린 수장고
(16수장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열린 수장고에서 소반과 반달이를 주제로 하여 첫 번째로 수장형 전시를 개최한다. 전통 생활에서 매일의 식사와 옷가지 보관에 사용되었던 소반과 반달이는 '쓰임'으로 최적화된 기능만이 아니라 장인의 섬세한 솜씨가 더해져 그 자체로 품격과 조형적 미를 갖추고 있다. 200여 점의 전통 소반과 반달이 소장품과 현대 공예작가 13명의 작품 49점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우리 공예의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의 치미(Once Upon a Roof)

기간 2022.5.29-10.30.

장소 미국 워싱턴 새클러 갤러리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의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치미는 왕궁이나 사찰 등 중요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 양끝을 장식했던 대형기와를 말한다. 본 전시는 미국 최초로 치미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전통 건축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야금冶金: 위대한 지혜"

기간 2022.5.31.-8.28.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시실

야금은 불로 금속을 다루는 모든 일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인간은 금속으로 사회의 수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더해 영원불멸의 예술을 탄생시켰다. 야금을 통해 옛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마련된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전시품을 감상여 우리나라 역사와 문

화 속 야금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기간 2022.6.1-9.25.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2전시실, 중앙홀

이 전시는 한국 채색화의 전통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각 역할별로 19세기~20세기 초에 제작된 민화와 궁중장식화,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제작된 창작민화와 공예, 디자인, 서예, 회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 점으로 구성된 특별전이다. 전시에는 제15대 조계종 총장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강요배, 박대성, 박생광, 신상호, 안상수, 오윤, 이종상, 한애규, 황창배 등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낭산, 도리천 가는 길

기간 2022.6.15-9.12.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경주의 낭산이 고대 신라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이다. 사천왕사와 당덕사, 전傳 황복사, 능지탑 유적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와 학술성고를 토대로 관람객들에게 경주 낭산을 소개한다.

《공립박물관》

나를 만나는 계절

기간 2022.1.25.-5.29.

장소 대구미술관 2·3·4·5전시실

《나를 만나는 계절》은 유한한 생명의 자연인이지만, 반면에 무한한 생각을 펼치기도 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전시이다. 전시는 4개의 주제, '생명을 지니다', '일상을 관찰하다', '나를 바라보다', '세상에게 묻다'로 구성된다. 전시의 전개를 생명에서 출발하여 나와 타인, 더 나아가 관계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비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안목(眼目): 청관재 이응노 컬렉션

기간 2022.3.24~6.26.

장소 이응노미술관

고故 조재진과 박경임이 1970년대 중반부터 수집한 청관재 컬렉션 중 1930~1980년대 이응노의 작품 100여 점을 공개하는 전시이다. 청관재 박경임은 조재진이 수집하였던 이응노의 전시도록, 리플렛 등의 아카이브 200여 건을 기증하였다. 이응노의 주요 대표작을 관람하면서, 미술사에 소개된 이응노의 작품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청금루 주인 성찬경

기간 2022.3.24~6.26.

장소 남서울미술관 2층 전시실

성찬경(1930~2013)은 평생 고유의 시론 확장을 도모해온 시인, '말예술'이라는 시강독 퍼포먼스를 펼쳤던 행위예술가였다. 또한 생전에 수집한 다양한 일상의 사물들과 교감하고 상상력과 연결하여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조형예술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시'를 개념적, 서사적 기틀로 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들었던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사물을 존재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상을 예술 창작과 생활에서 실천한 성찬경의 모습을 살펴본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 노실의 천사

기간 2022.3.24~5.22.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022년 권진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2021년 (사)권진규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이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총 141점을 기증한 큰 뜻을 기리는 전시이다. 1947년 권진규가 미술에 입문한 시절을 시작으로 세속적 삶을 떠나 고독한 미술의 세계로 입문하고 1973년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이르는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당시의 어떠한 사조나 분

위기에 휩쓸림 없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반영하면서 작품에 몰입하여, 자신만의 모더니티를 구현한 그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기간 2022.4.1.-7.17.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1

예술 작품을 자족적 완전체로 여기기 위해 익명의 국내외 작가 15명 내외의 작품을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작가 및 작품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적 사유를 되도록 쉽게 펼쳐 놓기 위해 가능한 한 복잡하고 난해한 예술 작품은 피하고 보다 순수 감각적인 문제들로 국한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와 관람자 등에게 주어진 역할의 장벽을 파괴하고 기존 예술계 논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서울사진, 실제와 환영

기간 2022.4.8~5.8.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서울역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사진회고전을 개최한다. 박물관의 개관 이래 서울의 모습을 담은 원로 사진작가의 사진 컬렉션 중 7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실에서는 60년대 서울 상공에서 시가지를 촬영한 김한용 작가, 1950~1970년대 재건 중이던 서울의 모습을 담은 한영수·홍순태 작가의 작품들과 서울의 광고사진 포스터 등을 선보인다.

휴과 몸 - 성긴 연결, 촘촘한 관계

기간 2022.4.12.-12.31.

장소 전남도립미술관 6·9전시실

2022년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품 상설전 용관을 신설하며 기획한 첫 번째 전시 《휴과 몸》은 예술의 역사에서 자주 다뤄져 온 휴과 몸의 의미에 대해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우리 미술관 소장품이 가지는 맥락을 읽

어보고자 기획되었다. 역사를 구성하는 지체로서의 휴과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몸, 이 둘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작품으로 구현되었는지 미술관이 그간 수집해온 소장품을 통해 알아보고자 전시를 구성했다.

그레이박스 이후: 수집에서 전시까지

기간 2022.4.15.-7.17.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2

그레이 박스는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을 위한 공간인 화이트 큐브와 필름과 비디오 투사를 위해 조성된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블랙박스 사이에서 아직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않은 회색지대이다. 또한 1990년대 춤, 연극과 같은 퍼포먼스 장르가 미술관으로 이입해 들어오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공간이다. 본 전시는 "그레이박스"가 등장한 이래 다변화하는 뉴미디어 작품의 매체 특성을 조명한다.

守衛都城

- 도성을 지키는 성, 탕춘대성

기간 2022.4.26~9.18.

장소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

창의문 밖에 조성된 탕춘대성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수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성 방어를 강화하는 방위체계를 완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탕춘대성은 지형의 능선을 따라 쌓은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있어 지형을 활용한 우리나라 성곽 축성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과거 선조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탕춘대성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시대의 변화상을 통해 조선의 수도방위체계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기간 2022.4.27~9.12.

장소 경기도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항일독립운동과 친일

파를 조명하는 특별전이다. 한말~일제강점기에 경기도에서 펼쳐진 의병활동과 3·1 만세운동의 장소 및 인물을 기리고, 친일파 및 일제잔재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역사의 엄중함과 국가·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기획되었다.

개관 20주년 특별전 '명품도시 한양'

기간 2022.5.20~8.7.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특별전이다. 소장품 중 고지도, 서예, 고문서, 도자공예 분야의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100여 점의 유물을 공개한다. 대표 전시품은 〈용비어천가〉, 〈대동여지도〉, 〈영조유유기요연 경현당수작연도병〉 등이며, 조선시대 도자와 목가구 명품들도 함께 출품되어 당시의 높은 공예수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드 아일랜드

기간 2022.6.16~8.7.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온라인

미술관의 기능인 수집과 연구, 전시와 교육의 바탕이 되는 '담론의 생산 조건'이자 과정으로서 제작(production)에 주목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에서 데이터로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 형식과 그에 따른 새로운 창작작 플랫폼을 상정한다. 시간간의 제약을 초월한 공유와 협업을 가능케 하는 웹의 잠재력을 전시 프레임으로 설정한다. 또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제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의 방식과 제작 개념을 제안한다.

<대학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기억記憶

기간 2022.2.15~6.15.

장소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40년의 역사를 가진 호림박물관은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억'이라는 테마

를 2022년 첫 번째 특별전의 주제로 삼았다. 호림박물관은 '기억'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도자기, 토기, 철기, 회화 등 다양한 재질의 고미술품 170여 점을 선정하여 풀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작가 조덕현, 이주용, 임민욱의 작업이 고미술품과 어우러져 한 공간에서 선보인다.

Andreas Gursky

기간 2022.3.31~8.14.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7전시실

독일 태생의 사진작가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현대미술 기획전이다. 거스키는 1980년대 중반의 초기작에서는 담담한 시선으로 주변 풍경을 포착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원거리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조합·편집하여 새로운 장면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하였다. 작가는 사진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여 현대 문명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를 포착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거대한 사회 속 개인이라는 미미한 존재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이 전시에는 1980년대 초기작부터 2021년 신작에 이르는 그의 작품 50여 점이 출품된다.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국립광주박물관 순회전시

기간 2022.4.29~6.30.

장소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1층 동곡실

(특별전시실)

차와 술 문화를 중심으로 고려청자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마련된 전시이다. 고려시대 왕실귀족과 문인, 승려들이 사이에서는 차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실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술을 사용하였고 담당 부서를 두어 특별히 관리하는 등 술 문화도 같이 발전하였다. 이를 즐기기 위한 청자 도구들은 고려의 최고 기술로 세련미 넘치게 제작되었다.

2022 환지본처還至本處, 돌아온 성보문화재 특별공개전

기간 2022.4.29~6.12.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환수해 온 도난 성보문화재 32건이 특별 공개된다. 조계종 종단은 도난된 성보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전시는 종단의 노력으로 환수되어 사찰로 돌아갈 성보들을 공개하여, 불성의 화현이자 예경의 대상인 성보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하였다. 전시된 성보 중 7건은 전시 종료 후 원래 봉안된 사찰로 돌아가게 되며, 이를 부처님 전에 고하는 환수고불식이 한국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우리웃 디자이너 이리자 기증 특별전

기간 2022.5.27~7.19.

장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한복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이끌어 온 고故 이리자(1935~2020) 선생의 작품과 기록물을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1974년 미스유니버스 대회 최우수 민족의상상 수상작, 대통령 영부인 한복, 단청무늬·조각이음 한복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한복류가 공개된다. 아울러 당시의 연구 과정을 담은 작업노트와 사진 등도 일반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2022 춘계연합 학술 심포지엄 - 컬렉터와 컬렉션〉

일자 2022.4.2.

장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주최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서양미술학회, 한국미술이론학회

•1부

1. 미술품 기증 문화와 이견희 컬렉션
- 윤범모(국립현대미술관 관장)
2. 조선시대 컬렉션과 컬렉터: 의미와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황정연(문화재청)
3. '이견희 컬렉션'의 공공화에 대한 논점과 제언
- 이슬찬(G밸리산업박물관)
4. 작가미술관의 개인컬렉션 전시 사례연구:
《안목: 청관재 이용노 컬렉션》 전시를 중심으로

•2부

1. '달헌정원'에 수집된 귀부인:
'여인과 유니콘' 태피스트리를 중심으로
- 박민경(바라캣서울갤러리)
2. 16세기 플랑드르 권력 다툼 속에 피어난 여성 군주의
이탈리아적 예술 취향
- 구지훈(국립창원대학교)
3. 컬렉터의 죽음, 컬렉션의 삶:
17-18세기 프랑스 예술품 컬렉터의 유서와 사후 판매 기록
연구
- 김한결(중앙대학교)
4. 집단 자의식의 조형: 카이요보트 유증의 역사적 의미
- 박재연(아주대학교)
5. 아라리오뮤지엄 컬렉션과 영국 젊은 예술가들
- 김윤영(아라리오뮤지엄)

〈2022년 제38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일자 2022.4.9.

장소 경남 양산시 통도사

주최 불교미술사학회

•1부

1. 中國 甘肅省 妙因寺의 明代 佛傳壁畫 研究
- 정하담(원광대학교)

2. 서울 寧國寺址 출토 金剛鈴 연구
- 이연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왕실과의 공존: 김제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방불좌상 연구
- 고지용(서울대학교박물관)

•2부

1. 영주 부석사 多佛會掛佛幀 불사와 도상 변화
- 김별아(국립한국문화관)
2. 길상과 벽사, 해학의 변주: 19C 후반기~20C 전반기 사찰 벽화
〈까치 호랑이〉와 〈담배 피는 호랑이〉 고찰
- 강영주(문화재청)
3. 화승 월주 원덕문의 불화와 단청
- 김석곤(한국전통문화대학교)
4. 佛國寺 殿閣과 伽藍配置 變化에 關한 研究
- 신재수(경주대학교)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일자 2022.4.9.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부

1. 의도된 미숙함-고희동과 김관호의 탈외광파 경향
- 이애선(홍익대학교)
2. 청강 김영기의 신문인화: 전통의 복원과 현대적 변용
- 이안나(명지대학교)
3. 시각화된 문화적 민족주의: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잡지
〈상공시대〉와 안석주의 광고 디자인
- 전용근(서울대학교)
4. 195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리얼리즘 사진운동
- 유지의(성균관대학교)
5. 장영혜중공업의 사용자 - 비친화적 텍스트와 불능의 읽기
- 민경소(서울대학교)

•2부

1. 권진규 조각의 리얼리즘론 재고
- 최태만(국민대학교)
2. 권진규 아카이브 분석 -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 신수경(충남대학교)

3. 권진규 조형기법 연구 – 테라코타와 건칠을 중심으로
– 김경(김경미술품보존연구소)
4. 조각가 권진규와 영화인 권진규의 사이
– 박소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성, 젠더, 시각문화: 경계와 차별을 넘어 사회적 포용으로〉

일자 2022.4.9.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미술사학연구회

•1부

1. 명대(明代) 말기(末期) 여성화가 연구: 기녀화가(妓女畫家)와 규수화가(閨秀畫家)를 중심으로
– 박나빈(영지대학교)
2. 북한과 소련의 미술교류 연구 – 1950년대를 중심으로
– 안민영(북인천중학교)
3. 러시아 이동파, 대의와 생계 사이에서
– 김가영(가나아트)

•2부

1. 《증안들: 우리의 사라짐에 저항하여》전 연구: 1980년대 배제적 AIDS 담론과 예술적 포용의 장
– 이임수(홍익대학교)
2. 조선 후기 춘화(春畵): 젠더적 관점에서 본 경계와 차별, 재현을 둘러싼 문제
– 서윤정(영지대학교)
3. 에도시대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 이미지
– 황녀(皇女)에서 유녀(遊女)로
– 김정희(서울대학교)
4. 18세기 중국의 여성 초상화, 〈왕옥연사란도〉
– 장준구(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백제의 치석과 결구〉

일자 2022.4.22.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강당, 공식 유튜브

주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고고학연구회, 백제문화재단

•1부: 기초강연

1. 백제의 석조 건축 기술
– 배병선(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2. 백제의 석조기술과 석재의 조달체계
– 이찬희(국립공주대학교)
3. 백제 역사문화 콘텐츠와 대중화 방안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2부: 주제발표

1. 백제 사비기 석재 치석기술과 굴림주건물지
– 정훈진(한국문화재단)
2. 백제 건축물의 치석과 결구기술
– 조원창(한얼문화유산연구원)
3. 사비도성 일원의 백제 성벽 治石과 結構
– 심상욱(국립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4. 백제 사비기 황혈식석실묘의 치석기술
– 이현숙(국립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5. 백제 사비기 치석기술과 건물지
– 임종태(한헤리티지센터)
6.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과 중국의 사면불상
– 류승진(국립익산박물관)

〈(사) 한국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자 2022.4.23.

공식 유튜브

주최 한국미술사학회

•1부

1. 고려시대 자물쇠의 유형과 제작
– 박민정(국립중앙박물관)
2. 조선 15세기 자기 유통의 다원화와 공납용 상감청자의 성격
– 안유정(이화여자대학교)
3.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궁중사녀도(宮中仕女圖)》
8첩 병풍의 고찰
– 김소영(수원대학교 박물관)
4. 남전(南田) 운수평(惲壽平, 1633-1690)의 화훼화풍 형성 연구
– 박기연(국립경주박물관)

•2부

1. 신라 하대 철불의 연원과 의미
- 권보경(동국대학교 박물관)
2. 조선 후기 회화 주문제작의 확산과 영향
- 이연주(충북대학교)
3. 조선시대 사대부 묘비의 일월상(日月象) 연구
- 김주미(경기대학교)
4. 근대 창덕궁 주요 전각의 공간과 장식 특성 연구
- 조시내(문화재청)

〈문신(文信)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일자 2022.4.2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사연구회

•1부

1. 문신의 초기 작품에 대한 일고찰: 일본 유학을 단서로 하여
- 김지영(영남대학교)
2. 전후(戰後) 프랑스 체재 외국인 미술가들과 문신
- 박신영(한국국제교류재단)

•2부

1. 1960~70년대 자료를 통해 본 조각가 문신의 조형관
- 이윤수(홍익대학교)
2. 문신 조각의 원시주의와 내재적 충동
- 이상윤(성신여자대학교)
3. 선(線)의 예술, 생(生)의 찬미: 문신의 드로잉에 대한 소고
- 정은영(한국교원대학교)
4. 문신, 부분과 전체의 복합적 위계와 상호성
- 박미예(국민대학교)

〈전환과 전범의 시대 오대~송의 미술문화〉

일자 2022.5.7.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주최 동양미술사학회, 국립중앙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부

1. 五代~宋 山水畫: 典範의 形成과 傳統의 成立
- 박은화(충북대학교)

2. 享樂과 安息: 송대 고분벽화 속 〈宴飲圖〉의 새로운 형식과 의미
- 지민경(홍익대학교)
3. 北宋代 미륵 신앙과 도상: 중국 山西省 開化寺 〈彌勒上生經變相圖〉를 중심으로
- 황선우(국립아시아미술관)
4. 중국 五代~宋 불탑 내 불상 봉안의 二元的 성격
- 최선아(영지대학교)

•2부

1. 송대 금속공예의 두 가지 축: 倣古銅器와 금은기
- 이용진(국립중앙박물관)
2. 송대 彩色瓷器의 생산과 소비문화
- 김은경(덕성여자대학교)
3. 入宋 승려와 鎌倉시대의 차문화
- 이정은(이화여자대학교)
4. 五代 南唐·吳越의 석탑
- 강병희(동아시아미술연구소)